



2012년 9월 28일(금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8월중 개인소비지출, 6개월래 최대 증가
- 2) 미국 모기지 금리, 사상 최저로 하락
- 3) 미국내 외국인 주택구매 비중 급증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스페인, 재정적자 감축위해 재정지출 삭감 선택
- 2) 그리스, 정부 위기 상황에서 해외로 재산 유출한 부유층 과세 추진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 르네사스, 금융지원 받기로 결정
- 2) 포브스, 미국내 가장 영감(Inspiring)주는 기업으로 애플 선정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8월중 개인소비지출, 6개월래 최대 증가

- 지난 9월28일(현지시간) 미상무부는 8월중 개인 소비지출이 전월대비 0.5% 증가했다고 발표
 - 이는 전문가 예상치 0.5%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월의 0.4%보다는 높은 수준
 - 아울러 지난 2월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
- 다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.1% 증가에 그침
 - 이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하면서 지출규모가 늘어났기 때문
 - 연준(FRB)의 인플레이션 척도로 쓰이는 개인소비지출(PCE) 가격지수는 0.4% 상승, 지난 2011년 3월 이후 1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
- 한편, 개인 소득은 동 기간중 0.1% 증가해 시장 예상치 0.2% 증가를 하회했고, 이중 임금 부분은 0.2% 증가에 그침
- 또한 저축률은 8월중 3.7%를 기록, 전월의 4.1%대비 감소세를 나타냄
 - 이는 낮은 소득 증가율 가운데 소비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

2) 미국 모기지 금리, 사상 최저로 하락

- 지난 9월27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금주중 30년 만기 미국 모기지 금리는 평균 3.4%로 전주 3.49%대비 하락, 지난 1971년 가장 낮은 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
 - 또한 15년 만기 평균 금리는 2.77%에서 2.73%로 하락, 역대 저점을 갱신
- 전문가들은 연준(FRB)의 모기지채권 매입이 금리 하락을 유도했다고 평가

3) 미국내 외국인 주택구매 비중 급증

- 지난 9월27일(현지시간) 전미부동산협회 (NAR)는 금년중 외국인들의 미 주택 구매는 현재까지 총 825억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24%나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
 - 캐나다, 중국, 멕시코 국적 외국인들이 주로 주택을 구매
 - 이 중 캐나다인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미국 주택시장에서 160억 달러의 부동산을 매입, 외국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
- 한편 NAR은 외국인들의 미국내 주택 구매 성향은 미국인들과 달리 가격에 민감하지 않고, 안전한 투자 목적으로 미국 주택시장을 선호하고 있다고 평가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스페인, 재정적자 감축위해 재정지출 삭감 선택

- 지난 9월27일(현지시간) 스페인의 소라야 산타마리아 데 사엔스 부총리는 내각회의 직후 내년 예산안에서 세금 인상보다는 재정지출을 삭감해 적자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발표
 - 사엔스 부총리는 2013년 총 예산액중 사회지출이 63.5%를 차지할 것이며 연금과 공적 부조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
 - 또한 증가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연금 유보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
- 아울러 향후 6개월간 경제 개혁을 위해 43개의 새로운 법률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
 - 스페인 정부는 EU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연금을 동결하고, 65세인 은퇴 연령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67세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짐

2) 그리스, 정부 위기 상황에서 해외로 재산 유출한 부유층 과세 추진

- 지난 9월28일(현지시간) 뉴욕타임스(NYT)는 엄청난 정부부채와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부유층의 사례를 포착,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
 - 최근 그리스 정부는 영국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지난 2009년 이후 현지 부동산에 투자한 그리스인 400명의 명단을 넘겨받은바 있음
 - 그리스 정부는 저명한 기업가와 은행가, 해운업 재벌, 프로 운동선수 등이 포함된 이 명단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, 불법 자금 유출과 세금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소환과 함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
- 이에 앞서 그리스 정부는 세금 탈루와 불법 축재 의혹을 받고 있는 30명 이상의 그리스 정치인들의 은행 계좌 조사 내역을 공개한바 있음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 르네사스, 금융지원 받기로 결정

- 지난 9월28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일본 르네사스가 주요 주주와 은행들로부터 970억 엔(약 1조3,900억원)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보도
 - 주요 주주인 NEC와 히타치, 미쓰비시전자가 495억 엔을 지원, 일본은행들도 다음달 1일 신디케이트론 형태로 475억 엔을 지원할 계획
- 르네사스는 주력 상품인 시스템 대규모 집적회로(LSI) 칩의 수요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최근까지 노력한바 있음
 - 직원 5천 명을 감원, 18개 국내 공장 가운데 9곳 이상을 폐쇄하거나 매각하고 마이크로컨트롤러 부문에 집중기로 결정

2) 포브스, 미국내 가장 영감(Inspiring)주는 기업으로 애플 선정

- 지난 9월25일(현지시간) 포브스는 미국에서 가장 영감(inspiring)을 주는 기업에 애플이 선정됐다고 보도
 - 포브스는 소비자 2,17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, 가장 영감을 주는 기업에 애플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위에 올랐다고 발표
 - 애플의 뒤를 이어 월마트와 타깃,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순위에 오름
- 한편 포브스는 소비자들은 특정 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을 통해 감동을 느낄뿐 아니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면서도 영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평가
 - 애플은 소비자의 개인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인식돼 가장 영감을 주는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분석
 - 2위 월마트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노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약속도 지켜 신뢰를 받은 반면, 직원 처우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지적
 - 3위 타깃의 경우 세전 이익의 3%를 지역사회에 내놓거나 기부운동을 위해 구세군과 제휴한 점 등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했다고 평가